

야권, 민정수석실 부활 “정권 방탄용” 비판

민주 “사정기관 장악력 높이려해” 조국당 “우병우 시즌2 결말도 뻔해” 與 “가감없이 민심 청취 국정 반영” 尹 “사법 리스크 있다면 제가 해결”



김주현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신설을 두고, “검찰 장악”, “정권 방탄용”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계거리일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

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돼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방탄하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는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며 “우병우 시즌 2의 결말도 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주이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이 없어도 뻔히 느껴지는 민심인 ‘채 상병 특검’을 전격 수용하게끔 제안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실 첫 민정수석의 첫 성과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주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 본질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민정수석실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만으

로 대통령의 민심 청취 능력이 크게 향상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높게 평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

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저에 대해 제기된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하셨다”며 “저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 총선 당선인들, 오늘 전남도와 예산정책 협의

제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이 내년 전남도 예산과 정책 현안, 국고 사업 논의를 위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8일 오전 10시 도청 서재필실에서 연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신정훈 당선인(나주·화순)을 비롯해 박지원(해남·완도·진도)·이재호(담양·함평·영광·장성)·서삼석(영암·무안·신안)·주철현(여수갑)·김원익(목포)·조계원(여수을)·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당선인이 모두 참석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서동욱 도의회의장, 전남도 주요 간부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민생경제와 지역소멸 등 각종 위기에

처한 전남의 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민주당 전남 당선인들과 전남도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22대 국회 개원 이전에 함께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도당에서는 전남 각 지역별로 내년도 예산정책과 국고지원 사업 총 33건을 접수해 전남도와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총선 공약과 지역별 숙원사업을 비롯해 당면 현안과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도당 관계자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에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 발전과 함께 민생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단 출범을 기념해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민주, 친명계 전진배치 22대 1기 원내대표단 구성

22명 중 19명 초선 당선인 비서실장에 정진욱 임명 부대표 조계원·정준호 맡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친명계(친이재명)계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단을 꾸리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새 원내대표단은 친명계인 박 대표와 박성준 운영수석, 김용민 정책수석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인선(19명)은 모두 초선 당선인으로 이뤄졌다.

원내대변인에는 노종면(인천 부평갑)·윤종균(경기 안성)·강유정(비례) 당선인이 임명됐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광주 동남갑의 정진욱 당선인이 임명됐다.

여수 을의 조계원, 광주 북구갑의 정준호 당선인을 비롯해 광안(서울 종로)·박민규(서울 관악갑)·김남희(경기 광명을)·안태준(경기 광주을)·김용만(경기 하남을)·부승찬(경기 용인병)·모경중(인천 서구병)·송재봉(충북 청주청원)·김태

선(울산 동구) 당선인과 정을호·임광현·백승아·서미하 비례대표 당선인 등 15명은 원내부대표를 맡게 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를 실현하는 개혁 국회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원내대표단은 ‘개혁기동대’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권 견제, 개혁 과제 완수라는 커다란 숙제를 줬다”며 “22대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개혁과 성과로 국민께 화답하는 당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예방한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여야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자리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정국에 파란이 일 것 같으니 채 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이들 현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 정부 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와 같이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부메랑으로 심판 받을 일”이라며 “그래서 법사위, 운영위는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 뿐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꾸려지면서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는 한층 강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시선관위 ‘유권자의 날’ 전시회 연다

9~14일 ‘L=O ΓS’

광주시선관위가 제13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이색 전시회를 연다.

광주시선관위는 10일 제13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9일부터 14일까지 동구 예술의거리 광주미술관에서 ‘L=O ΓS’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L=O ΓS’는 나와 너는 모두 유권자라는 의미의 문장을 수학기호 ‘등호(=)’

와 한글 초성으로 표현한 것이다.

유권자의 날은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출발점인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고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광주시선관위는 9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6일 동안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자체 제작한 ‘아주 평범한 민주주의’라는 선거영상도 상영한다. **김은지 기자**

최지현 시의원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 통과

광주지역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1·사진)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을 지난 2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문제 조기 진단과 필요시 적절한 치료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자료를 인용 “지난해 9월 기준 광주의 초·중·고생 중 약 5.3%(5만5000여명 중 2900여명)가 정서 행동 관심군에 속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1.4%(795명)는 ‘자살위험군’으로 조사됐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기에 유



최지현 시의원

아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검사에 참여한 광주시 초·중·고생 중 관심군 비율은 2020년 4.4%, 2021년 4.8%, 2022년 5.1%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자살위험군도 각각 1.2%, 1.1%, 1.3%로 소폭 감소 후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최 의원은 “이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중요시하는 광주시 교육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유아기에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지원해 광주시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정진욱 “의원들간 소통 통로·가교 역할 할 것”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선임된 정진욱(사진) 광주 동남갑당선인은 7일 “원내대표를 성실하게 보좌하면서 원내대표와 당 의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의 통로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진욱 비서실장은 “개혁기동대 22인

의 일원으로 무능한 윤석열정권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발로 뛰겠다”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원내대표비서실장으로



정진욱 비서실장

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즉각 응답하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대변인을 4차례 맡은 최측근 인사다. **서울=김선욱 기자**